

# 김 대장 실종 나흘째...“정부, 中 국경 열어달라 요청해야”

김홍빈 브로드피크원정대 조벽대 추진위원

“마지막 위성전화 통화... 힘든 목소리였지만 의식·판단능력 명확”  
위치 파악에 총력...러시아·이탈리아 등 6개국 원정대원 대기 중

“한시가 급합니다. 한국 정부라도 나서 중국에 국경을 열어달라 요청해야 합니다.”

2021 김홍빈 브로드피크원정대 조벽대(51·사진) 추진위원은 지난 21일 밤 광주일보와 만나 현재 난관을 겪고 있는 김홍빈(57) 대장 수색작업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대장은 19일 오전 5시 55분께(현지 시각) 조 위원에게 위성 전화로 구조 요청했다. 조 위원은 “힘든 목소리였지만,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 의식 명확하고 판단 능력도 명확하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산악계에서 활동하는 조 위원은 김 대장과는 절친한 선·후배로 손가락이 없는 김 대장을 위해 특수 주마(jumar-몸을 끌어올리는 등강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원정대에서는 한국과 파키스탄 현지를 연결해 고도별 기상 일정 등을 파악해 등반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 위원은 광주에 마련된 대책위 사무실에서 김 대장의 위치 파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조 위원은 “사고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 대장의 상태를 가늠지 못하고 있다. 어서 빨리 수색작업을 시작해 김 대장을 찾아야 한다”면서 “파키스탄 베이스캠프에서는 수색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중국 국경이 열리기만 하면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베이스캠프에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폴란드, 이탈리아 등 6개 나라에서 온 원정대원들이 대기 중이다. 하지만, 김 대장의 사고 위치가 파키스탄이 아닌 중국 영토라는 게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국 월경 요청을 한 상태지만 파키스탄의 행정 처리능력이 더딘 관계로 월경에 대한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

조 위원은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두 나라에



수색협조를 강력하게 요청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색하는 건 부적절하다. 사고지점에서 5km 지점에 수색대원들이 대기 중이다. 스카르드에서 오는 헬기를 이용한 수색작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술한 난관 극복한 사람...꼭 돌아올 것”

김홍빈 아내, “구조활동 신속하게 해달라” 호소

“그동안 술한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1%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티는 사람입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이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지 나흘째인 22일. 광주시정 사고대책위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장의 아내 A씨는 “김 대장을 찾는 일이 하루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 대장의 사고소식이 전해져 광주시정에 대책위가 꾸려진 날부터 지금까지 대책위 사무실에 상주하며 남편의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10여 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김 대장을 만나 가정을 이룬 A씨는 “매년 잘 다녀와서 걱정은 없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며 김 대장의 생환을 확신하고 있다. 김 대장이 캠프3에 도착했던 16일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 A씨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몸상태가 좋다. 곧

다녀오겠다’고 하니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직도 남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파키스탄 현지 날씨 상황 등이 이번 주말부터 나아진다면 수색활동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김 대장의 구조 상황을 담은 러시아 원정대의 일지가 SNS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너무 안 좋은 상황만 나열했다. 구조 상황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중국 쪽에서 국경을 열어주지 않아 수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지만 행정 처리가 더딘 파키스탄 현지 사정으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A씨는 “산악인의 아내가 별 수 없네요.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지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진수 기자 jeans@

## 55~59세 다음주 접종...수도권 화이자·비수도권은 모더나

사전예약 82.5% 293만명

50~54세 8월 접종 예정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더디지만 백신 접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일 신규 1차 접종자가 약 15만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누적 접종자 수도 1천6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총 1644만 2892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 9116명)의 32.0%에 달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내주부터는 50대에 대한 대규모 1차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백신 접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내주 월요일인 26일부터 55~59세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이지만 50~54세 접종 기간인 8월 16~28일 사이에도 추가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55~59세 접종 대상자는 356만3145명으로, 전날 12시 기준으로 293만8120명(82.5%)이 사전 예약을 마친 상태.

이들 중 첫 주(7.26~31)에 접종하는 대상자는 주로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상자의 경우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



22일 광주 동구보건소에 설치된 상사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음압공간인 검체채취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다. 이는 전날 새벽 도착한 화이자 백신 186만 6000회분을 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수도권 위탁의료기관(251개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당사자들에게는 사

전에 백신의 종류 등 관련 정보가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8월에 접종하는 나머지 50대들도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당국은 현재 백신 도입 일정에 변동성이 큰 만큼 주 단위로 대상자별 접종 백신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삭감한 신문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

지발위, 독립적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 보장 촉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삭감된 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독립적인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지발위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에서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발위는 “이번 정부 들어 2018년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약 5억원 삭감됐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며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지발위는 “특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

와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25억 3800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7억 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짚었다.

지발위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문화체육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며 “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발위는 “이번 정부 들어 2018년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약 5억원 삭감됐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며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지발위는 “특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구독료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b>장성 토지 (매매 분양)</b>	<b>상가매매 (상무지구)</b>
<p><b>광주에서 20분(6M도로접)</b>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p>1) 감정가(시세) <b>9억</b> 매매가 <b>6억 3천</b> (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